도서문화 제60집 | 43~75쪽 | 2022.12.
DOI: https://doi.org/10.22917/island.2022..60.43

『高麗圖經』에 보이는 慶源亭의 위치 고찰*

허우범**

〈차 례〉

Ⅰ. 머리말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영종도의 갯벌 형성과 정박 가능지
Ⅳ. 경원정 위치 비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Ⅴ. 군산정과 안흥정, 흑산정 위치의 특징
Ⅵ. 경원정의 위치 비정
Ⅶ. 맺음말

[국문초록]

1123년 고려를 다녀간 서긍은『선화봉사고려도경』을 편찬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고려를 다녀간 항로와 정박한 정관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는 12세기 고려와 송의 항로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고려의 항로는 물론 군산정과 안흥정 및 경원정에 대한 위치 연구가 진행되었다.

군산정과 안흥정 및 흑산정은 서긍의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학계에서도 그 위치가 비정되었다. 하지만 경원정이 있는 영종도는 신공항 건설과 배후도시 개발로 인하여 고고학적 발굴이 어려운 까닭에 아직도 경원정의 위치 비정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서긍이 기록한 경원정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군산정과 안흥정, 흑산정이 위치한 지역의 특징을 영종도에 접목하는 방법을 통하여 경원정의 위치를 비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유적 발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같은 시기 세 정관의 특징을 비교하여 경원정의 위치를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경원정의 위치 비정 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물사와 제물포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고려도경, 고려항로, 경원정, 제물사, 자연도

---

* 본 논문은 제11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2021)와 인천일보(22.9.7)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초빙교수

Ⅰ. 머리말

12세기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는 중국의 송, 북방의 요·금, 동북의 고려가 정족지세를 이루고 있었다. 고려와 요는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항상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였고 실제로 3차례에 걸쳐 전쟁을 치루기도 하였다. 요·금은 중원진출이 목표였기에 송과도 군사적으로 대립관계였다. 반면, 고려와 송은 요·금을 견제하기 위하여 상호 우호관계를 구축하였다.

1123년, 북송의 휘종은 금의 압박이 거세지자 고려의 지원을 이끌어 낼 목적으로 대규모의 國信使를 고려에 파견하였다. 휘종은 이를 위하여 특별히 神舟 2척을 제작토록 하였는데 길이가 40m에 이르는 당시에는 초대형 선박이었다.[1] 송의 국신사 중에는 예물관 서긍도 있었는데 그는 고려를 다녀와서 『고려도경』[2]을 편찬하여 황제에게 올렸다. 이 책은 일종의 고려견문록으로 고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12세기의 고려사 연구에 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신사 일행이 오간 바닷길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여 12세기 동중국해사단항로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고려와 송의 교류는 바닷길을 통하여 이뤄졌다. 북송 때에는 주로 산동반도와 서해 연안을 잇는 서해횡단항로를 이용하였는데, 요의 위협이 심해지자 서해횡단항로 대신에 절강성 명주(영파)에서 흑산도를 잇는 동중국해사단항로를 이용하였다. 동중국해사단항로는 순풍을 타면 8일 내에 왕래할 수 있지만 흑산도에서 벽란도에 이르는 고려의 서해연안 항로는 위험한 곳이 많았다. 이러한 까닭에 고려는 항로의 요충지에 亭館을[3] 지어 항행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

1) 송의 국신사 행렬은 神舟 2척과 客舟 6척을 포함하여 총 8척의 船團을 이뤘다. 『高麗圖經』에는 객주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길이는 10여 丈, 높이는 3丈, 너비는 2丈 5尺으로 2천斛의 곡식을 실을 수 있다'고 하였다. 신주의 크기에 대하여는 '객주의 세 배가 된다'고 하였다.(『高麗圖經』 '海道1') 문경호는 이러한 기록에 입각하여 객주와 신주의 크기를 계산하였는데, 객주는 30m, 신주는 40여m로 추정하였다.(문경호, 「12세기 초의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神舟의 고려 항로」, 『한국중세사연구』 55, 한국중세사학회, 2018, 19~27쪽.)

2) 정확한 명칭은 『宣和奉使高麗圖經』으로 총 40권이다.

3) 일반적으로 사신을 영접하고 전송하는 의례를 행하는 곳은 亭이라고 하고, 숙식하는 공간은 客館이라고 하는데 이를 합쳐서 亭館이라고 한다.(진호신, 「『고려도경』을 통해 본 마도와 안흥정」,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83쪽.)

하였다.

서긍은 모두 5개의 정관을 기록하였는데 그가 머문 곳은 흑산정을 뺀 4곳이었다.[4] 서긍 일행이 머물렀던 군산정과 안흥정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 힘입어 그 위치 비정에 있어서도 학계의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5] 경원정의 위치 비정 연구도 있었지만 영종도의 신공항 건설과 택지개발로 인하여 다른 곳의 정관처럼 그 흔적을 살펴보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경원정 위치 비정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6] 12세기 고려와 송의 항로 연구에 있어서 경원정의 위치는 그 비정의 어려움만큼이나 학계의 관심거리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려 항로에서의 군산정과 안흥정 및 흑산정의 위치 연구 성과를 참조하고 서긍의 바닷길 기록에 보이는 특징과 조선시대의 사료 등 관련 자료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경원정의 위치를 새롭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검토

송의 고려사절단은 군산정과 안흥정을 거쳐 자연도의 경원정에 정박하였다.

---

4) 서긍이 기록한 고려의 정관은 흑산정(흑산도), 군산정(선유도), 안흥정(마도), 경원정(영종도), 벽란정(벽란도)이다.

5) 군산정은 선유도의 망주봉 남쪽, 안흥정은 마도 해안가로 비정되었다. 군산정과 안흥정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들이 있다.
곽장근, 「새만금 속 한중문물교류」, 『한중관계연구』 2-1,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6, 87~109쪽; 김성규, 「'宣和奉使高麗使節團'의 群山島 入島와 東아시아 海域의 五龍廟 信仰」, 『중국사연구』 119, 중국사학회, 2019, 1~30쪽; 문경호, 「『高麗圖經』을 통해 본 群山島와 群山亭」, 『지방사와 지방문화』 18-2, 역사문화학회, 2015, 73~94쪽; 허경진, 「고려시대 송나라 사행해로 누정의 변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12,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7, 117~139쪽; 김성호, 『중국진출 백제인의 해상활동 천오백년』 2, 맑은소리, 1996, 406~408쪽; 김명진, 「고려시대 객관 안흥정 재검토」, 『영남학』 7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155~184쪽; 윤용혁, 「고려시대 서해 연안해로의 객관과 안흥정」, 『역사와 경계』 74, 부산경남사학회, 2010, 29~57쪽; 이호경, 「태안 안흥정 학술조사 성과보고」, 『제8회 태안역사문화학술발표회』,태안문화원, 2015, 12쪽; 진호신, 「안흥량 일대 역사유적의 현황과 활용방안」, 『해양문화재』 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9, 203~239쪽; 「『고려도경』을 통해 본 마도와 안흥정」,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78~99쪽.

6) 경원정의 위치 비정은 문경호(「1123년 서긍의 고려항로와 경원정」, 『한국중세사연구』 28, 한국중세사학회, 2010, 485~519쪽)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서긍이 기록한『고려도경』의 경원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이날(6월 9일) 申刻에 배가 자연도에 정박하였는데 이곳은 廣州지역이다. (경원정은) 산에 의지하여 관사를 지었는데, 榜에 '慶原亭'이라고 하였다. 경원정 곁에는 幕屋 수십 칸을 지었고, 주민들이 사는 초가집도 많다. 산 동쪽에 있는 한 嶼에 제비가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紫燕島라고 부른다.[7]

자연도의 현재 이름은 永宗島이다. 자연도가 영종도로 바뀐 것은 조선 효종 4년(1653),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에 설치한 영종진을 자연도로 옮겨오면서 이름도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8] 그러므로 경원정의 위치는 영종도에서 살펴보아야만 한다. 경원정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하는 문제는 조선시대부터 의문이었다. 하지만 시대적인 연원에 비하여 위치 비정 연구는 많지 않다. 이제까지 경원정의 위치를 논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월미도 행궁터

경원정의 위치를 처음 제시한 사람은 김정호였다. 그는 월미도 행궁에 경원정이 있었다고 하였다.

> ① 섬의 동남쪽에 행궁이 있는데『대명일통지』에서 말하는 "옛날 객관이 있었는데 경원정이라고 하였다"는 바로 이것이다.[9]

김정호가 인용한『대명일통지』는 명나라 초기에 자국의 전체 강역과 주변 조공국의 지리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한 지리서이다. 이 책에서 자연도에 대한

---

7) 『高麗圖經』 卷39, 「海道」 6, '紫燕島'
"是日申正, 舟次紫燕島, 卽廣州也. 倚山爲館, 榜曰慶源亭. 亭之側, 爲幕屋數十間, 居民草舍亦衆. 其山之東一嶼, 多飛燕, 故以名之."

8) 『大東地志』 卷4, '永宗浦鎭' "孝宗四年, 移南陽永宗浦萬戶, 于紫燕島."

9) 『大東地志』 卷4, '永宗浦鎭 月尾島' "島之東南有行館, 大明一統志云, 舊有客館曰慶源亭是也."

설명 중에 “광주의 海中에 있으며 옛날에는 경원정이라는 객관이 있었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하였다.[10] 『대명일통지』는 그 이전의 사료들을 참고하여 조선의 주요 지명을 기록한 것으로 경원정 부분은 『고려도경』의 내용을 옮겨놓은 것이다.[11] 즉, 김정호는 앞서 살펴본 『고려도경』의 경원정 부분을 『대명일통지』가 간략하게 정리한 것만을 보고 월미도의 행궁이 경원정터라고 추론하였던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영종진이 자연도로 이동함에 따라 자연도가 개명된 것이기 때문에 월미도를 자연도로 보는 것은 맞는다고 할 수 없다.

2. 영종도 중산동 구읍뱃터[12]

경원정이 영종도 중산동의 구읍뱃터에 있었다는 내용은 『인천부사』에 보인다.

> ② 경원정은 옛날 중국에서 내조하는 사신들을 영접하였던 장소로 근사한 객실이 세워졌는데 구읍에 있었다고 상상된다. 최근까지 경원정 편액이 걸려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흔적도 없다.[13]

『인천부사』의 내용은 『여지도서』「강도부지」의 다음 기록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14]

> ③ 영종방영의 관사 : 영해관, 양해당, 태평루, 경원정【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15]

---

10) 『大明一統志』「外夷 · 朝鮮國」, ‘紫燕島’
“紫燕島. 在廣州海中舊有客館曰慶源亭.”

11) 『大明一統志』는 1461년에 완성되었으며 지리지의 특성상 이전 시대인 송 · 원대의 사료들을 참고하여 완성하였다. 경원정에 관한 내용은「外夷 · 朝鮮國」條에 있다. 조선의 산과 고개, 강과 섬들을 기록하였는데 섬의 대부분은 서긍이 『高麗圖經』의 ‘海道’에서 기록한 섬들이다.

12) 구읍뱃터는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48-3 인근지역으로 현재에도 맞은편의 월미도(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문화로 36)를 오가는 여객선이 운행되고 있다.

13) 仁川府編, 『仁川府史』, 昭和 8年(1933), 28쪽.
“慶源亭は往時支那より來朝する使者を接待せし所であり, 立派な客室が建てられてあつたが, 舊邑に在つたと想像される. 最近迄慶源亭なる額がかかつてゐた由であるが, 今は何等遺跡が無い.”

14) 『輿地圖書』는 영조 시기인 1757~1765년 사이에 전국 팔도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사료②〉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상'하고 '전해오는 이야기'만으로 경원정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구읍뱃터는 19세기 초까지도 작은 섬이었다. 서긍은 경원정이 산에 의지해서 세워졌고 주변에는 막집 수십 칸과 초가집들이 많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구읍뱃터는 수십 채의 막집과 많은 초가집이 들어설 수 없는 공간이다. 따라서 구읍뱃터를 경원정터로 비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사료③〉은 고려시대에 자연도로 불렸다가 조선시대에 영종도로 개칭된 곳에 설치된 4개의 관사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태평루와 경원정은 하나가 아닌 각각 별개의 것이다. 경원정이 18세기 이전에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태평루를 세웠다면 경원정처럼 태평루에도 별도의 주석을 달았을 것이다. 〈사료②〉와 〈사료③〉을 종합하면 『여지도서』에 기록된 내용이 약 이백 년간 口傳되는 과정에서 『인천부사』의 기록처럼 같은 장소로 '추측'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16] 이는 「강도부지」에 보이는 태평루와 경원정을 같은 장소로 본 것이다. 이러한 착오가 협소한 구읍뱃터를 경원정으로 비정하게 된 것이다.[17]

3. 영종도 백운산 동쪽 운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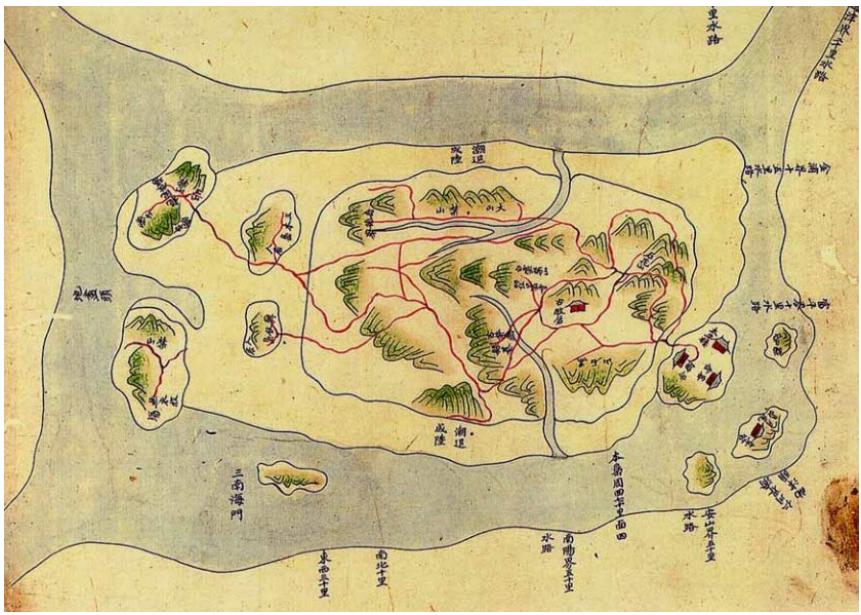
경원정의 위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문경호가 시작하였다. 그는 경원정터를 영종도의 주산인 백운산의 동쪽 자락 끝에 비정하였다.[18] 그는 이곳이 경원정터가 될 수 있는 이유로 『광여도』에 기록된 '古紫燕縣基'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약 1㎞ 떨어진 지점이 풍수지리를 중시하는 고려인들이 선택하기 좋은 위치라고 하였다. 아울러 다수의 고려시대 기와편과 청자편이 수습되었기

15) 한국사데이터베이스, 『輿地圖書』 上 「江都府誌」 '永宗防營圖誌' "館舍"
"頷海館, 量海堂, 太平樓, 慶源亭【古有今無】"

16) 조선시대에 태평루를 건설하고 이곳에 경원정의 편액을 다시 설치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태평루가 고려시대의 경원정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서긍의 경원정에 관한 기록과 대비해보아도 구읍뱃터는 부합되지 않는다.

17) 문경호도 월미도 행궁과 영종도의 구읍뱃터는 경원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문경호, 앞의 논문, 498~500쪽.)

18) 문경호, 위의 논문, 501쪽.
문경호는 경원정터를 운남동 GS자이아파트 동쪽 500미터 지점의 남동쪽 사면이라고 하였다. 즉, 월미도 방향으로 백운산의 오른쪽 끝자락이다.



<지도 1>『해동지도』「영종진도」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백운산 북쪽에 위치한 龍宮寺를 濟物寺로 보고 서긍이 2시간 이내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로 보았다.[19]

문경호의 주장은 앞서 살펴본 주장에 비해 훨씬 발전된 것으로 일면 타당성이 높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아야할 문제도 존재한다. 먼저 서긍 일행이 타고 온 신주와 객주의 크기와 규모로 미뤄볼 때 항상 일정한 수심이 유지되는 곳이어야만 정박이 가능하다. 이는 배의 선형이 대양을 항해하기 편리한 첨저선이기 때문에 썰물 때 갯벌이 드러나는 곳이거나 얕은 곳에 정박하면 배가 쓰러지거나 박혀서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긍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항상 배의 선두에 납추를 달고 수심을 재어가며 운항해야한다고 하였다.[20] 진호신의 연구에 의하면 서긍 일행의 선단은 썰물 때의 수심이 최소 5m 정도는

19) 문경호, 위의 논문, 501~502쪽.

20)『高麗圖經』卷34, '客舟'

"海行, 不畏深, 惟懼淺閣. 以舟底不平. 若潮落則傾覆不可救, 故常以繩垂鉛砣以試之."

유지되어야만 정박이 가능하다고 한다.[21] 문경호는 〈지도 1〉의 남쪽에 보이는 갯골 입구에 서긍의 선단이 정박하고 彩舟를 이용하여 경원정으로 이동하였다고 하였다.[22]



<지도 2> 1980년대 매립 전의 영종도 갯벌 모습[23]

〈지도 2〉는 1980년대 영종도가 매립되기 이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도를 살펴보면 영종도 남쪽은 썰물 때면 갯벌이 해안에서 5㎞이상 드러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서긍 일행이 타고 온 신주와 객주의 船形은 원양 항해에 편리하게 만든 尖低船이다. 이러한 배는 갯벌이 드러나는 곳에 정박할 수 없고 진호신의 주장처럼 최소 5m이상의 수심이 유지되는 곳에 정박하여야 안전하다. 그러므로 서긍의 선단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곳은 현재의 구읍뱃터 외에는 다른 장소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갯골이 있는 곳을 정박지로 보는

21) 진호신은 태안 마도 안흥정의 정박지에서 송 · 원대 닻돌의 위치를 조사하였는데 썰물을 기준으로 수심5m와 7m의 깊이에서 출수되었다. 그는 이를 사례로 객주는 5m, 신주는 7m의 수심을 유지하여야만 정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고려도경』을 통해 본 마도와 안흥정」,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86쪽.)

22) 문경호는 영종도에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곳으로 구읍뱃터, 백운산 갯골 아래, 삼목도의 삼목포, 영종도 북단의 예단포를 들었다. (문경호, 앞의 논문, 491쪽.)

23) 인천일보사, 인천일보DB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경원정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경원정과 濟物寺와의 거리이다. 서긍은 경원정을 출발하기 전에 제물사에 들러서 예전에 사신으로 왔다가 죽은 左班殿直 宋密을 위해 승려들과 飯僧儀式을 마치고 신주로 돌아와 출발하였는데 이는 모두 2시간이 걸렸다. 문경호는 제물사를 '백운산 계곡에 있는 龍宮寺'에 비정하였다. 그가 경원정터로 비정한 운남동 백운산 자락 동단에서 북쪽 계곡에 있는 용궁사까지는 지금은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자동차로 5분 거리이지만, 당시에는 갯벌을 피해 해안가를 따라가서 용궁사로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다.[24] 게다가 서긍이 제물사를 가기 위해 출발한 장소는 神舟였다. 그는 신주에서 다시 작은 배인 采舟로 갈아타고 관사인 경원정에 가서 안내인을 대동하고 제물사에 들렀다.[25] 그런데 〈지도 2〉에서 보듯이 갯벌이 해안에서 5㎞이상 드러난다면 신주와 해안까지의 거리는 더 멀 수밖에 없다. 이 거리까지 고려하면 편도만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거리이다. 아울러 서긍이 제물사의 승려들에게 베푼 반승의식도 최소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2시간 이내에 제물사를 다녀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긍 일행의 선단이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해서는 썰물 때 갯벌이 많이 드러나는 곳보다는 潮水의 영향이 거의 없이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는 곳이 안전하다. 이에 적합한 곳은 〈지도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읍뱃터 뿐이다. 영종도는 조선시대까지도 영종진을 설치하고 수군이 주둔하였던 곳이다.[26] 〈지도 3〉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영종진도」(1872)이다.[27] 이 지도를 살펴보면 수군진이 위치하였던 곳은 濟物梁과 인접한 구읍뱃터 일대였음을 알 수 있다.[28]

---

24) 이 구간을 구글지도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측정하면 약 4㎞정도다. 용궁사는 산 속에 있어서 산길로 600여m를 올라가야 한다. 이러한 이동상황을 반영하면 대략 1시간은 걸린다고 할 수 있다.

25) 『高麗圖經』 卷39, '紫燕島'
"十日辛卯辰刻, 西北風, 八舟不動. 都轄吳德休, 提轄徐兢, 同上節, 復以采舟詣館, 過濟物寺. 爲元豐使人故左班殿直宋密, 飯僧畢, 歸舟. 巳刻, 隨潮而進."

26) 『顯宗改修實錄』 10卷, 顯宗 5年 2月 7日 庚子; 『肅宗實錄』 23卷, 肅宗 17年 4月 11日 丙寅; 『肅宗實錄』 24卷, 肅宗 18年 5月 16日 乙丑; 『肅宗實錄』 42卷, 肅宗 31年 5月 26日 戊子; 『英祖實錄』 102卷, 英祖 39年 11月 29日 壬午.

27) 규장각본, 『지방지도』, 「영종진도」, 1872년.



<지도 3> 『지방지도』「영종진도」

이곳에 수군진을 설치한 것은 일정한 수심이 유지되어 선박이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정박지로 유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곳은 배들이 상시적으로 오가는 길목인 제물량을 잘 살필 수 있는 곳이다. 이를 보아도 서긍 일행의 선단은 구읍뱃터에 정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Ⅲ. 영종도의 갯벌 형성과 정박 가능지

〈지도 1〉의 영종진도를 살펴보면 영종도 주위로 썰물 때에 드러나는 갯벌이 '潮退成陸'으로 표시되어 있다. 영종진도에 보이는 이 갯벌의 길이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 영종진이 위치한 곳은 C자형 灣의 바깥쪽이다.

① 영의정 허적(許積)을 인견(引見)하였다. 그것은 허적이 강도(江都)로부터 돌아왔기 때문이다. 허적이 보고하기를, "자연도의 지세(地勢)는 조수가 물러가면 수십 리가 물이 질퍽한 땅이 되고 비록 만조(滿潮)일 때라도 사방에 풀이 있습니다. 풀이란 바닷 가운데 모래와 흙이 높이 쌓인 곳에 있습니다. 배가 다니다가 여기에 부딪히면 문득 부서져서 가라앉게 됩니다. 배를 정박할 만한 곳은 다만 태평암(太平巖)의 한 곳만이 있는데 지세(地勢)가 매우 좋습니다."[29]

〈사료①〉은 17세기 후반 영종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30] 당시에도 영종도의 갯벌은 수십 리나 이어졌다고 하였으니 이는 10㎞가 넘는 길이다.[31] 또한, 수십 리의 갯벌은 밀물이 되어도 바다 한가운데에 모래와 흙이 높이 쌓여 있는 곳이 있어서 배가 다닐 수 없다고 하였다.[32] 이러한 까닭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은 현재의 구읍뱃터인 태평암이 있는 곳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까지 여러 사료와 현재의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서긍 일행의 선단이 정박할 수 있는 곳은 현재의 구읍뱃터 선착장이었음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를 보다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 1〉의 영종진도에 표시된 갯골 입구 일대에서 수군진이 있었던 구읍뱃터가 포함되는 영종도 남쪽 일대의 갯벌과 해저수심을 살펴보았다.[33] 그리고 〈지도 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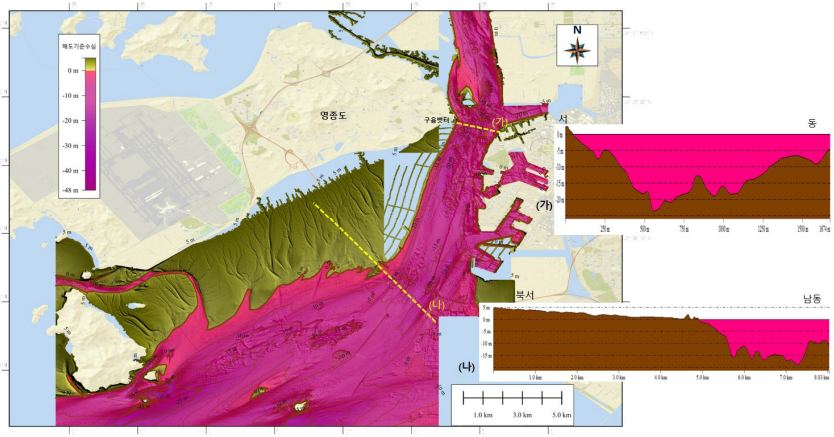
29) 『肅宗實錄』 3卷, 肅宗 1年 4月 28日 丙辰
"引見領議政許積, 以積自江都歸也. 積曰: 紫燕地勢, 潮退則數十里爲沮洳之地, 雖潮滿之時, 四面有草. 草者, 海中有沙土高積處也. 舟行觸此, 則輒敗沒. 泊舟之處, 只有太平巖一項, 形勢甚好."

30) 이 사료는 숙종 1년 때의 기록으로 서기 1675년에 해당된다.

31) 조선시대의 里數는 초기와 후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후기의 10리는 4㎞에 해당된다. 사서에 기록된 수십 리의 범위는 보통 20~40리를 말하는데 30리로 환산하여도 갯벌의 길이는 12㎞에 해당한다.(김상보 · 나영아, 「고대 한국의 도량형 고찰」,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4, 동아시아식생활학회, 1994, 7~12쪽.)

32) 바다 가운데 모래나 흙이 쌓여 있는 곳을 현재도 '풀등'이라고 부른다. 인천 앞바다의 이작도에는 커다란 풀등이 있다. 풀등 주변에서는 현재에도 고려시대의 청자와 중국의 도자기들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는데, 당시에 이 주변을 오가던 선박들이 풀등에 부딪혀서 침몰하였기 때문이다.

33) 이를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해당지역의 '고정밀수심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지도 4> 영종도 일대 갯벌 현황 및 수심분석도[34]

〈지도 4〉의 오른쪽에 표시된 해저 수심분석도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低潮)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구읍뱃터가 있는 (가)지역의 해저지형의 요철상태를 살펴보면 해안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서 해도기준 약 5m 깊이의 수심이 형성되어 있다. 선박의 通航에 문제가 없는 지역이다. 게다가 滿潮 때의 인천지역의 평균조차가 8m임을 고려하면 해안가 가까이에 배를 접안할 수 있다. 따라서 서긍 일행의 선단이 이 지역에 정박한 후 彩舟로 육지까지 이동하기에도 적당한 거리라고 할 수 있다.

(나)지역은 「영종진도」에서 갯골이 표시된 지역이다. 이 지역의 해저지형의 요철상태를 살펴보면 해안에서 5km에 이르는 곳까지 갯벌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앞의 〈사료①〉에서 보았듯이 이 갯벌의 길이는 조선시대에 비하여 훨씬 줄어든 것이다. 갯벌의 길이가 조선시대보다 줄어든 이유는 주변 섬들 사이를 간척하여 육지로 만들고 인천항만 건설과 항로의 준설작업 등으로 인하여 조수가 제물량으로 몰리게 되자 조류 흐름이 빨라져 갯벌이 깎여나간 것으

34) 이 지도는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한 '고정밀수심자료'를 바탕으로 영종도 일대의 해저지형 형태와 해저지형의 요철 상태를 고해상도의 수심격자모델로 구성한 것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로봇실증센터 박요섭 책임연구원의 도움이 있었기에 제작이 가능하였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로 보아야한다.[35] 따라서 조선시대의 기록을 따른다면 서긍 일행의 선단은 적어도 해안가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정박하여야만 한다.

영종도를 포함한 서해안의 갯벌이 형성된 시기에 관한 연구 성과를 참조하면 기원전 4000년경부터 海面 위로 갯벌이 형성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변동 없이 약 20~30m 두께의 갯벌퇴적층을 형성하였으며[36], 이러한 갯벌의 퇴적 속도는 평균적으로 연간 3~5㎜라고 하였다.[37] 이러한 지질변화 속도를 참고하면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사료①〉과 갯벌의 형성과정 및 현재의 해저 지질상태 등을 검토해보아도 서긍 일행의 선단은 해안가 가까이에 배를 접안할 수 있는 (가)지역인 구읍뱃터가 정박지로 적합하며 해안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지역인 갯골 입구는 정박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Ⅳ. 경원정 위치 비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원정의 위치 비정은 인천공항과 배후도시 건설에 따른 고고학적 발굴조사의 불가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서긍이 군산정과 안흥정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과 이를 토대로 두 정관의 위치를 비정한 연구결과를 참고한다면 경원정의 위치 비정도 가능할 수 있다

35) 이는 간척의 확대가 潮汐의 속도를 빠르게 하여 침식을 증가시키고, 준설작업은 조석의 진폭을 증가시켜 지속적인 침하의 원인이 된다는 아래의 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Cheng, Z., Jalon-Rójas, I., Wang, X.H., Liu, Y. (2020). Impacts of land reclamation on sediment transport and sedimentary environment in a macro-tidal estuary, *Estuarine Coast and Shelf Science*,242, Estuarine Coastal Sciences Association(ECSA), ISSN 0272-7714.
https://doi.org/10.1016/j.ecss.2020.106861
2. van Maren, D.S., Oost, A., Wang, Z.B., Vos, P. (2016). The effect of land reclamations and sediment extraction on the suspended sediment concentration in the Ems Estuary. *Marine Geology*,376, Elsevier, pp.147-157.
https://doi.org/10.1016/j.margeo.2016.03.007

36) 이윤화, 「한국 서·남해안의 갯벌 지형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5, 126~130쪽.

37) 고철환, 「우리나라 갯벌의 규모와 간척」, 『한국의 갯벌-환경, 생물 그리고 인간』, 2001, 서울대출판부, 68~71쪽.

고 여겨진다. 경원정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는 정박처와 경원정의 거리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군산정과 안흥정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군산정은) 바닷가에 있고 뒤로 두 봉우리에 의지하였는데 그 봉우리는 나란하게 우뚝 서 있어 절벽을 이루고 있는데 수백 길이나 되었다.[38]

② (안흥정은) 그 아래를 지나가는 배들이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암초에 부딪힐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곳에 객관이 있는데 안흥정이라고 한다.[39]

〈사료①〉과 〈사료②〉를 살펴보면 군산정과 안흥정은 모두 바닷가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亭館시설이 사행단을 영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까닭에 보다 편리한 운용을 위해서는 정박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군산정과 안흥정은 〈사료③〉과 〈사료④〉에서 보듯이 수군진이 있는 곳과도 가까웠다.

③ (군산도에 이르자) 6척의 배가 와서 맞이했는데, 무장한 병사를 싣고 징을 울리고 고동나팔을 불며 호위하였다. (중략) 배가 섬으로 들어가자 연안에 기치를 잡고 늘어선 자가 1백여 명이나 되었다.[40]

---

38) 『高麗圖經』 卷36, '群山島'
"其亭瀕海, 後倚兩峰, 相竝特高, 壁立數百仞."
39) 『高麗圖經』 卷37, '馬島'
"故舟過其下, 多不敢近. 慮觸暗焦也. 有客館曰, 安興亭."
40) 『高麗圖經』 卷36, '群山島'
"六舟來迓, 載戈甲, 鳴鐃, 鹹角爲衛. (中略) 舟旣入島, 沿岸秉旗幟列植者, 百餘人."

④ (마도에 이르자) 연안에 기치를 들고 환영 나온 군졸들이 도열하였는데 군산도의 경우와 다르지 않았다.[41]

이는 사행단의 영접과 그들의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시키고 관리하는데 수군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에게 음식과 식수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업무도 수군이 담당하였던 것이다.[42]

경원정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제물사의 위치와 관련된 것이다. 서긍이 飯僧의식을 치른 제물사는 元豐 연간(1078~1085)에 고려에 사신으로 왔다가 자연도에서 病死한 좌반전직 송밀의 묘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후로 오는 사신들은 반드시 제물사에 들러 승려들을 공양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송밀의 무덤에 절을 올렸다.[43] 서긍도 이러한 전례를 따라 제물사에 갔던 것이다. 제물사는 일반적인 사찰이 아니라 왕이 편액을 하사한 勅建寺刹이다. 제물사가 칙건 사찰이었음은 다음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왕께서 은택을 베풀어
제물이란 이름의 편액을 내리신 곳
달이 뜨니 천지가 온통 희고
구름이 걷히니 온 섬이 푸르도다.[44]

고려 후기의 문신인 李穀은 고려 三隱의 한 명으로 불리는 牧隱 李穡의 아버지이다. 그가 당시 자연도의 제물사에 머물며 벽에 걸린 시를 보고 次韻하

41) 『高麗圖經』 卷37, '馬島'
"岸次迓卒旗幟, 與群山島不異."

42) 진호신은 고려시대 亭館에 주둔한 수군은 사행단의 의전과 호위뿐만 아니라 조운선의 원활한 운항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진호신, 앞의 논문, 88쪽.)

43) 『高麗圖經』 卷18, '釋氏'
"先是, 元豐間, 上節使臣宋密, 歿於紫燕島. 自後使至, 必於濟物寺飯僧致祭, 上節以次羅拜墓下. 比者, 衙命至彼, 亦襲前例."

44) 李穀, 『稼亭集』 卷15, '宿濟物寺 次壁上韻'
"先王有遺澤. 濟物牓玆亭. 月出乾坤白. 雲收島嶼青."(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여 풍정을 노래한 율시 한 편을 지었는데, 이 시의 내용에서 왕이 '제물사'라는 편액을 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는 불교국가였다. 일반적으로 왕이 편액을 하사한 사찰은 다른 곳에 비하여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물사는 칙건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정전과 문, 행랑 이외에는 법당이나 집이 없고 승려도 2~3인뿐으로 좁고 누추한'[45] 절이었다. 이는 절의 기능이 일반적인 사찰과는 다른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濟物寺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한 항해를 빌거나 항해 중 목숨을 잃은 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濟物이라는 의미가 '만리 풍파를 헤치고 험한 뱃길을 다니는 뱃사람들의 어려움을 구제하고 불의의 사고로 불귀의 혼이 된 뱃사람들의 영혼을 부처의 세계로 올바르게 제도하는 것'[46]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물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가 산 속에 있는 것보다 바닷가에 있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항행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만 뱃사람들이 공양을 바치고 위로를 받기에도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려와 조선은 바닷길을 통해 조세를 운반하였다. 漕運은 대부분 남해와 서해 연안을 따라 올라와 수도인 京倉으로 옮겨졌는데 조운선이 조심해야할 험난한 길목은 '梁'이라고 하였다.[47] 현재의 월미도 앞바다에서 강화도의 염하수로로 이어지는 곳을 조선시대에는 濟物梁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제물사는 제물량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만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48]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서긍이 기록한 정관과 주변의 지형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서긍은 『고려도경』을 편찬하면서 고려와 관

45) 『高麗圖經』 卷17, '祠宇'
"又紫燕島, 有濟物寺, 群山島, 有資福寺, 殿與門, 廡之外, 亦無堂室, 其徒三二人而止爾. 凡此者, 以其屋宇, 隘陋且多, 故略其圖, 而載其名焉."

46) 문경호, 앞의 논문, 506쪽.

47) 해협의 문이나 그 입구를 '梁'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바닷물이 급하게 흘러 항해하기에 험난한 곳이다. 露梁, 鳴梁, 難行梁, 濟物梁 등이 그곳이다.

48) 서긍이 경원정을 거쳐 제물사를 다녀오는 시간은 두 시간 정도였다. 제물사가 제물량을 바라보는 곳에 있으면 경원정도 제물량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만 타당하다.

련된 내용은 가급적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애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그림을 추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따라서 서긍이 기록한 세 정관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경원정의 위치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⑤ (군산정은) 바닷가에 있고 뒤로 두 봉우리에 의지하였는데, 두 봉우리는 나란하게 우뚝 서 있어 절벽을 이루는데 (높이가) 수백 길이나 되었다.[49]

⑥ (마도의) 主峰은 원만하고 두터운데, 왼편으로 둥그렇게 감싸 안은 형국이다. 앞으로는 돌부리 하나가 바다로 잠겨 있어 격렬한 물결은 굽이치는 파도를 일으키고 들이치는 여울은 솟구쳐 오르는 것이 매우 기괴한 모습인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50]

⑦ (경원정은) 산에 의지하여 관사를 지었는데 '경원정'이라는 방문이 있다. 경원정 곁으로는 막사가 수십 칸이 있으며, 거주하는 백성의 초가집도 역시 많다.[51]

위의 사료들은 서긍이 정박하였던 세 정관이 위치한 곳의 지형을 기록한 것이다. 군산정은 '두 봉우리가 나란히 우뚝 서 있어 절벽을 이루고 수백 길이나 치솟아 있다.'고 하여 현재의 선유도 망주봉에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안흥정은 '섬의 主峯이 왼편으로 둥그렇게 감싸 안은 형국'의 모습을 한 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긍은 이처럼 군산정과 안흥정이 위치한 지형의 특징적인 모습을 세밀하게 기록하여 정관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경원정은 '산에 의지하여 관사를 지었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영종도의 주봉은 백운산이다. 서긍의 기록방식으로 미뤄볼 때, 경원정이 백운산 자락에 있으면 반드시 '주봉'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모습을 기록하였

49) 『高麗圖經』 卷36, '群山島'
"其亭瀕海, 後倚兩峰, 相竝特高, 壁立數百仞."
50) 『高麗圖經』 卷37, '馬島'
"其主峰渾厚, 左臂環抱. 前一石背入海, 激水回波, 驚湍洶涌, 千奇萬怪, 不可名狀."
51) 『高麗圖經』 卷39, '紫燕島'
"倚山爲館, 榜曰慶源亭. 亭之側, 爲幕屋數十間, 居民草舍亦衆."

을 것이다. 그런데 경원정이 있는 곳은 그 지형의 특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경원정이 일반적인 야산의 구릉지에 있었기 때문에 특이사항을 남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52]

마지막으로 군산정과 안흥정이 있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두 정관의 위치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이는 곧 경원정의 위치와도 상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동 시대에 운영된 경원정이 두 정관과 비슷한 위치에 건설되고 운용될 수는 있을지언정 전혀 다르게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정관의 특징을 파악하면 경원정의 위치 또한 어렵지 않게 비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Ⅴ. 군산정과 안흥정, 흑산정 위치의 특징

서긍 일행이 정박한 군산정은 현재의 선유도이다. 현재까지 군산정의 위치에 대한 연구는 망주봉의 동남쪽에 비정하였다.[53] 안흥정의 위치에 대해서는 군산정보다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54]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안흥정의 위치는 태안 마도의 초입으로 비정되고 있다.[55] 이제까지의 군산정과 안흥정의 연구 성과를 지도에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56]

---

52) 고려도경에 보이는 서긍의 세밀한 기록은 바다에 솟은 육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각각 洲, 島, 嶼, 苫, 礁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高麗圖經』 卷37, '海道1')

53) 문경호, 「『高麗圖經』을 통해 본 群山島와 群山亭」, 『지방사와 지방문화』 18-2, 역사문화학회, 2015, 73~94쪽; 김성규, 「'宣和奉使高麗使節團'의 群山島 入島와 東아시아 海域의 五龍廟 信仰」, 『중국사연구』 119, 중국사학회, 2019, 1~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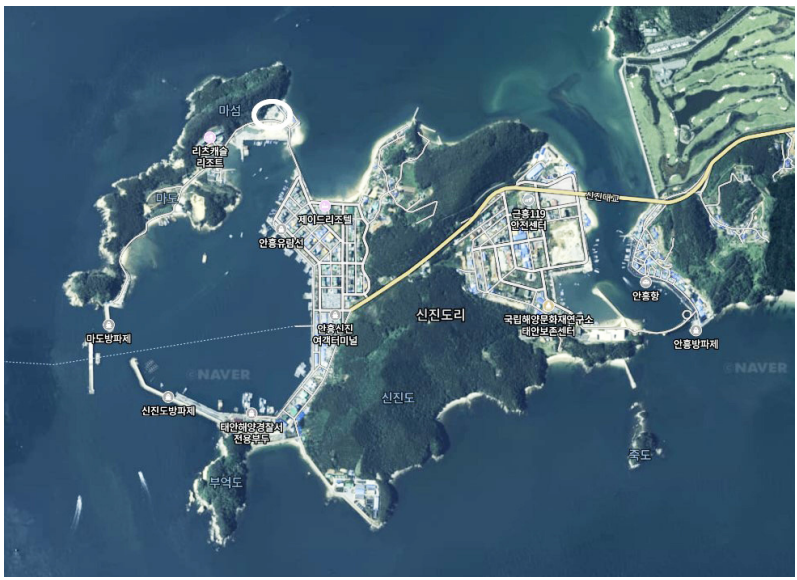
54) 안흥정의 위치 연구는 ①태안군 안흥진성 내부설(김성호, 『중국진출 백제인의 해상활동 천오백년』 2, 맑은소리, 1996, 406~408쪽), ②안흥량 일대 마도설(윤용혁, 「고려시대 서해 연안해로의 객관과 안흥정」, 『역사와 경계』 74, 부산경남사학회, 2010, 29~57쪽), ③신진도리 신진분교설(이호경, 「태안 안흥정 학술조사 성과 보고」, 『제8회 태안역사문화학술발표회』, 태안문화원, 2015, 12쪽), ④해미와 신진도리 이원화설(김명진, 「고려시대 객관 안흥정 재검토」, 『영남학』 7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155~184쪽), ⑤마도 초입설(진호신, 「안흥량 일대 역사유적의 현황과 활용방안」, 『해양문화재』 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9, 203-239쪽; 「『고려도경』을 통해 본 마도와 안흥정」,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78~99쪽) 등이 있다.

55) 진호신은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고 마도 앞바다의 수중 발굴성과와 수중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흥정의 위치를 마도 초입으로 비정하였다.(진호신, 앞의 논문(2022))

56) 지도는 군산정과 안흥정의 위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필자가 구글지도를 이용하여 다시 그린 것이다.



<지도 5> 군산정의 위치



<지도 6> 안흥정의 위치

〈지도 5〉과 〈지도 6〉에 보이는 두 정관의 위치는 모두 신주와 객주를 정박하고 采舟로 이동하기 편한 곳이다. 두 정관은 거대한 봉우리나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고려는 태조의 훈요십조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건국 때부터 풍수지리를 중시하였다.[57] 가장 기본적인 건물배치는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背山臨水'였다. 군산정과 안흥정의 위치는 육지가 아닌 바닷가에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산이나 산봉우리를 등지고 바다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고려시대의 풍수지리가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산정과 안흥정의 또 다른 특징은 〈사료Ⅳ-③〉과 〈사료Ⅳ-④〉에서 볼 수 있듯이 수군진이 가까이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 후기에 간행된 『해동지도』[5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도 7> 군산도 수군진과 군산정의 위치(◯부분)[59]

57) 김호동, 「고려시대 풍수지리설의 특성과 그 원인」, 『대구사학』 109, 대구사학회, 2012, 6~20쪽.
58) 『海東地圖』는 18세기 중엽에 관청에서 제작한 것으로 조선 8도 330여 개 郡·縣의 地圖와 그 내용을 기록한 地誌이다.
59) 『海東地圖』 全羅道 萬頃縣 '群山島' 부분



<지도 8> 마도 안흥진과 안흥정의 위치(◯부분)60)

〈지도 7〉과 〈지도 8〉의 수군진 지도에서 각각의 군산정과 안흥정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모두 수군진의 맞은편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유사시를 대비하는 데에도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두 정관이 위치한 지형을 살펴보면 천혜의 항구로서 최적지인 'C자형' 灣의 안쪽에 위치한다. 항로와 인접한 C자형 만 주변은 일반적으로 배가 정박하기에 안전한 지역이어서 항구는 물론 정관시설이 들어서기에도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C자형 만 인근의 항로는 상시적으로 일정한 수심이 유지되는 까닭에 수군이 상주하기에도 적합한 곳이다. 고려시대 수군의 역할과 임무 중에는 海路使臣의 儀典도 담당하였다. 따라서 정관이 있는 곳과 가까운 곳이거나 그 인근에 수군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61] 조선시대 군산정과

60) 『海東地圖』 忠淸道 安興鎭

61) 고려시대의 兵制는 '2軍6衛'인데, 6위의 하나인 千牛衛에 海領을 1領 두었다. 해령은 수군을 말하며 1령은 1600명의 병사와 78명의 지휘관으로 구성되었다.(『高麗史』「兵志」, 兵1) 이와는 별도로 兵船

안흥정 주변의 수군진 위치를 살펴보면 각각의 정관이 있는 맞은편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C자형 만 입구의 수심이 상시적으로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원정의 위치 비정도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긍은 흑산도에도 사신들을 위한 정관이 있으나 정박하지 않고 항행하였다. 따라서 흑산정의 특징에 대한 기록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흑산도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사항을 참조하면 흑산정의 위치와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서긍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 흑산은 백산 동남쪽에 있는데 바라보일 정도로 가깝다. 처음 바라보면 매우 높고 험준한데 가까이 다가가면 산세가 겹쳐 있는 것이 보인다. 앞의 작은 봉우리 하나는 가운데가 굴처럼 비어 있어 양쪽 사이가 벌어져 있는데 그곳에 배를 감출 수 있을 정도다. 옛날에는 이곳이 사신의 배가 묵는 곳이어서 지금도 관사가 남아 있다.[62]

위의 기록에서 흑산정도 군산정과 안흥정처럼 정박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배가 정박하는 곳과 흑산정이 있었던 곳은 천혜의 입지인 C자형 만과 그 인근이었다. 흑산도의 관사터는 서긍이 말한 흑산정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데[63] 이곳의 유적발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 위치가 읍동마을 일대이다. 이곳은 마을 북쪽에 위치한 상라산 줄기의 말단부로[64]

軍인 사수시(司水寺)를 설치하였고(『高麗史』「百官志」, 百官1), 지방에도 州縣軍을 배정하였다.(『高麗史』「兵志」, 兵3) 고려시대 수군의 배치와 수군진의 위치에 관한 기록은 사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고려의 건국세력이 해양호족세력이었음에 비춰볼 때 수군활동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고려와 조선의 수군은 왜적의 침탈을 막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원활한 운반을 위하여 漕運船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통적인 임무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고려와 조선은 중요한 요충지마다 수군진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고려와 조선시대 서해 연안의 자연지리는 큰 변동이 없었기에 연안의 요충지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수군진도 조선시대의 수군진과 같거나 인근지역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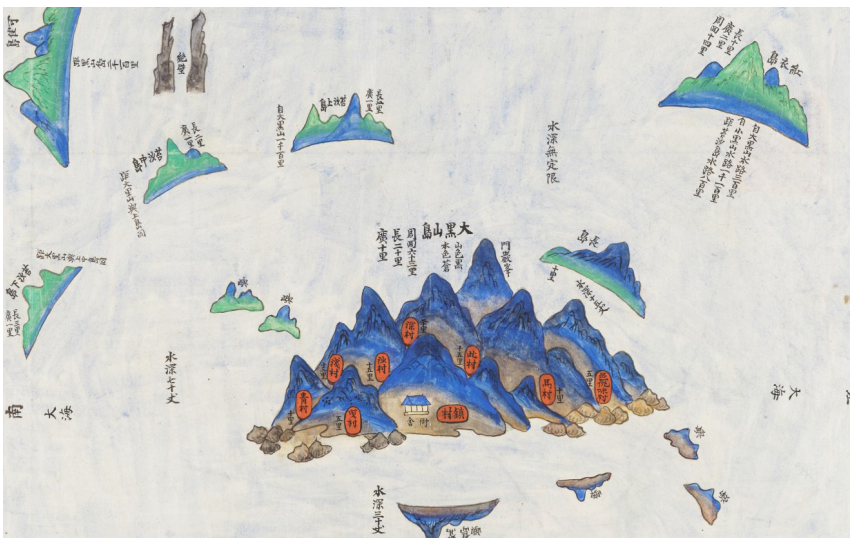
62) 『高麗圖經』 卷35, '黑山'
"黑山, 在白山之東南, 相望甚邇. 初望極高峻. 逼近見山勢重複. 前一小峯, 中空如洞, 兩間有澳, 可以藏舟. 昔海程, 亦是使舟頓宿之地, 館舍猶存."

63) 강봉룡, 「고대 한·중 항로와 흑산도」, 『동아시아고대학』 20, 동아시아고대학회, 2009, 28쪽.

64) 송미진 외, 「신안 흑산도 관사터 유적」, 『제11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기와학회, 2014, 46쪽.



<지도 9> 흑산정의 위치



<지도 10> 흑산진의 위치

흑산도에 대한 지표조사는 1999년에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가 시작하였으며 발굴성과는 『흑산도 상라산성 연구』(2000)로 발간되었다.

〈지도 9〉에서 보듯이 C자형 만과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지도 10〉은 흑산진이 위치하였던 곳을 추정할 수 있는 지도이다.[65] 이 지도에 표시된 주변의 섬들과 비교하여 흑산진이 위치한 곳을 살펴보면 흑산정의 위치로 비정되는 읍동마을의 맞은편인 동쪽 해안가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군산정과 안흥정 및 흑산정이 위치한 지형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세 정관은 모두 해안가의 C자형 만 안쪽에 위치하였으며, 수군진이 인근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66] 이러한 세 정관의 특징은 경원정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의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경원정의 위치를 비정해보고자 한다.

Ⅵ. 경원정의 위치 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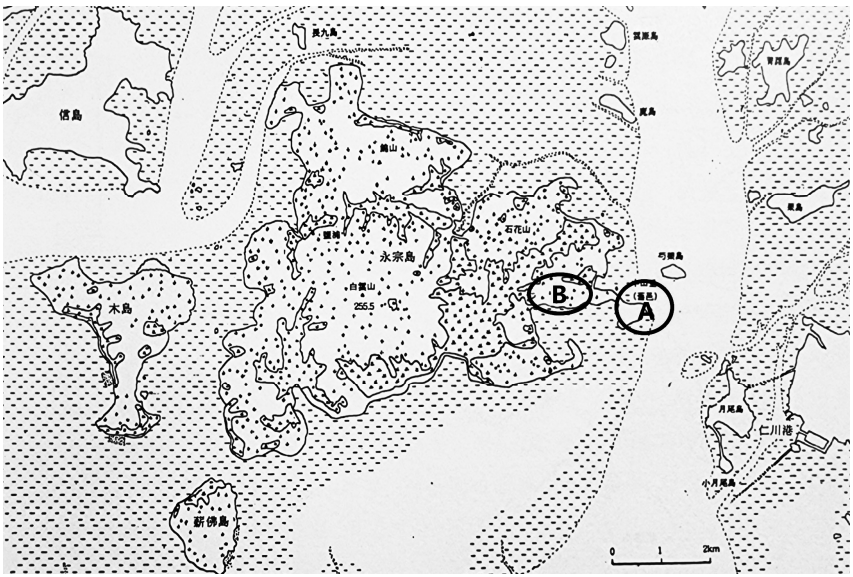
경원정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검토하여 얻은 결과와 함께 고고학적 발굴현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에 경원정 위치 비정에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을 수 있다.

첫째, 경원정은 제물량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둘째, 경원정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가까운 곳에 수군진이 위치하여야 한다.
셋째, 경원정으로 추정되는 곳에 당대의 고고학적 흔적이 있어야 한다.
넷째, 경원정 추정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 동시대 사찰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막집 수십 채와 민가가 많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해동지도』의 영종진도(〈지도 1〉)를 살펴보면 현재의 영종진공원이 있는 구읍뱃터는 섬이었다. 이곳에 만세교가 건설되어 영종도와 연결되었는데 『지

65) 규장각, 「1872년 지방지도」 '全羅右道 羅州地方 黑山島 地圖' 부분
66) 진호신은 군산진의 위치가 선유도 망주봉의 북쪽 전월마을 앞바다에 있었고, 안흥진은 마도의 동쪽에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군산정과 안흥정이 위치한 맞은편이며, 이로 미뤄볼 때 경원정과 벽란정도 같았을 것이라고 하였다.(진호신, 앞의 논문, 86~87쪽.)

방지도』의 영종진도(〈지도 2〉)에 만세교가 그려진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전부터 건설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영종진이 제물량을 오가는 곳의 요충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수군이 원활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도 필요하였을 것이다. 또한, 두 지도 모두 구읍뱃터를 시작으로 C자형 灣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도에서도 볼 수 있다.



<지도 11> 1912년의 영종도[67]

〈지도 11〉을 살펴보면 영종진이 있었던 구읍뱃터에서 현재의 중산동 일대가 C자형의 만을 이루고 있다. 수군진이 있었던 구읍뱃터(Ⓐ지역)는 제물량을 접하고 있어서 상시적으로 수심이 유지되는 곳이다. 영종진이 위치한 맞은편으로는 C자형의 만이 있는데 앞의 세 亭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경원정이 위치하기에 적당한 곳이다.(Ⓑ지역) 즉, 구읍뱃터에 사신단의 배들이 정박하고 采舟로 갈아타서 C자형 만으로 이동한다면 서긍의 기록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68]

67) 인하대박물관, 『신공항고속도로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1994)에서 재인용

신공항 건설에 따른 영종도 지표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이곳 중산동에서도 고려와 조선시대의 토기와 자기 등의 유물들이 발굴되었다.[69] 따라서 이 지역에도 고려시대의 시설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표조사 결과 현재의 박석공원 아래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으며 인근에서 우물터와 절터도 발견되었다.[70] 우물은 바닷가의 亭館이 있는 곳이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시설이다. 이는 원양 항해에 따른 선원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물터의 확인은 경원정의 위치 비정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아울러, 조사보고서에는 절터의 이름이 '安陽寺'라고 하였다. 濟物의 의미가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고 불귀의 혼들은 위로하는 뜻인데, 安陽의 의미도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쉬게 하는 극락정토를 일컫는'[71] 뜻으로 그 의미가 서로 통한다고 볼 수도 있다. 지명은 시대에 따라서 변천하지만 그 어원은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기 때문이다.[72] 경원정의 위치가 구읍뱃터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면 서긍의 기록과 부합하기 위해서도 현재 제물사로 비정되는 용궁사는 再考할 필요가 있다.[73] 경원정의 위치 비정에서 살펴볼 또 하나의 조건은 수십 채의 막집과 초가집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한다. 수문터가 발견된 중산동 일대는 자그마한 산이 북쪽을 둘러싸고 있고 바다 쪽으로는 완만한 구릉지여서 사방을 조망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이런 이유로 서긍이 기록한 막집과 수십 채의 초가집이 들어서기에도 적당한 곳이다.[74]

---

68) 정박지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고 영접할 경우, 몇 십리를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영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9) 인하대박물관, 앞의 책, 1994, 9~50쪽.

70) 이 일대의 지표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수문터와 우물터,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안양사터가 발견되었다.(중앙문화재연구원 외, 『영종지구개발사업부지내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2006, 82~89쪽.)

71) 안양시청 홈페이지, '안양시의 지명유래'

72) 지명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그 어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고구려 때의 泉井郡은 신라 때에는 井泉郡이라고 하였고, 고려시대에는 湧州라고 하였다. 시대에 따라 지명은 바뀌었지만 지명의 근원인 샘물(泉)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73) 용궁사가 그 위치상 제물사가 될 수 없다면 대안으로써 안양사가 발굴된 곳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74) 서긍이 군산정을 설명할 때 '봉우리가 수백 길'이라고 표현했고, 안흥정을 설명할 때는 '주봉'이라고 하였다. 경원정이 백운산에 있다면 이 역시 주봉이라는 표현을 하였을 것인데, 다만 '산에 의지하였다'고 기록한 것으로 봐서 꼭 높은 산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바다가 가깝고 식수가 용이한 지역이 최적의 장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는 경원정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하여 지표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치와[75] 위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중산동 박석공원' 일대 지역에 경원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지도 12> 경원정의 위치 비정

이곳은 구읍뱃터에서 가까운 곳이다. 수군진이 있었던 구읍뱃터의 맞은편에 위치하며 采舟로 이동하기에도 가까운 거리다. 아울러 박석공원에서 안양사터가 발견된 영종1동은 서쪽으로 1.5㎞ 거리의 평탄한 길이다. 서긍이 神舟의 정박처인 구읍뱃터에서 채주를 타고 경원정의 위치로 비정되는 박석공원을 거쳐 안양사터 지점까지 다녀오는 시간도 두 시간 이내의 거리이다. 또한, 이 일대는 작은 산을 배경으로 완만한 구릉을 이루고 있어서 고려시대는 물론 그 이전부터도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곳이었다.[76] 따라서 '중산동 박석공원' 일대 지역이 이제까지 살펴본 경원정의 위치 비정에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

75) 경원정 위치 비정에 필요한 수문터, 우물터, 안양사터 등이다.
76) 중앙문화재연구원 외, 『영종지구개발사업부지내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2006, 47~57쪽.

Ⅷ. 맺음말

『고려도경』에 보이는 바닷길은 12세기 고려와 송의 항로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대부분의 항로가 연구되었지만 경원정의 위치는 영종도의 신공항 건설에 따른 간척과 배후도시 개발로 인하여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대의 군산정과 안흥정 및 흑산정이 위치하고 있는 지형의 공통점과 서긍이 남긴 경원정과 관련된 기록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으로 경원정의 위치를 고찰하였다.

세 亭館이 위치한 곳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선박의 정박이 가능한 곳과 가까이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박과 항해가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수군진도 가까이에 위치하였는데 세 정관 모두 수군진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서긍의 기록을 살펴보면 경원정이 위치한 곳의 특징도 알 수 있다. 먼저 그의 기록방식으로 볼 때 경원정이 위치한 곳은 지형의 특이점이 없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즉, 영종도의 주봉인 백운산이 아닌 일반적인 야산이나 구릉지에 위치하였음을 알려준다. 이는 경원정 옆에는 '막집 수십 채와 백성들이 사는 초가집이 많다'는 내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원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절터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 거리는 구읍뱃터에서 경원정을 거쳐 절터에 이르고 다시 구읍뱃터로 돌아오기까지 90분 정도의 거리여야만 한다.[77]

필자는 이러한 특징들에 부합하는 지역을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구읍뱃터가 정박지로 적합한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한 영종도 남단 일대의 '고정밀수심자료'를 검토하였고, 더불어 조선시대 사료에 보이는 기록과 서해안 갯벌의 형성 및 진행 속도에 관한 연구를 비교하여 구읍뱃터가 정박지로 최적의 장소임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경원정의 위치를 합리적으로 비정하기 위하여 「영종도지표조사보고서」의 고려시대 발굴사항을 참조하고

77) 서긍은 제물사에 도착해서 반승의식을 치렀는데 이 시간을 약 30분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시대별 지도와 매립 전의 영종도 모습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영종도 중산동 박석공원 일대'가 경원정이 있었던 곳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지도 12〉) 이 지역은 수군진이 있던 현재의 구읍뱃터 맞은편에 위치하였으며 1980년대 신공항 건설로 인한 매립 전까지도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그 형태가 천혜의 조건인 C자형 灣의 안쪽에 해당한다. 아울러 박석공원 일대는 야트막한 산을 배경으로 해안가까지 완만한 구릉이 펼쳐진 곳이다. 서긍의 기록대로 수십 채의 막집과 초가집이 들어서기에도 적합한 곳이다. 아울러 박석공원 일대에서 고려시대의 자기와 토기편들이 발굴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에도 고려시대의 주거지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에서 서쪽으로 1.5㎞ 떨어진 곳에서는 안양사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볼 때 중산동의 박석공원 일대가 서긍이 기록한 경원정의 위치와 가장 부합되는 곳으로 판단된다.

경원정의 위치 비정 연구는 이제까지 미완으로 남아있는 고려시대 정관의 위치를 밝히는 중요한 연구임과 동시에 12세기 해로사행 여정 연구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 간략하게 예측한 제물사는 제물량과 함께 근대 인천의 별칭으로 불린 제물포의 기원과도 연관된 중요한 사항이다. 제물사는 관련 사료의 발굴과 검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관한 연구는 별도의 논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자료

『高麗史』

『宣和奉使高麗圖經』

『稼亭集』

『大明一統志』

『顯宗改修實錄』

『肅宗實錄』
『英祖實錄』
『大東地志』
『海東地圖』
규장각, 『地方地圖』, 187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청구기호 : 기타99999)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흑산도 상라산성 연구』, 2000.
인천부편, 『仁川府使』, 近澤商店印刷部, 1933.
인하대박물관, 『신공항고속도로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994.
중앙문화재연구원 외, 『영종지구개발사업부지내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2006.

2. 논저

강봉룡, 「고대 한 · 중 항로와 흑산도」, 『동아시아고대학』 20, 동아시아고대학회, 2009.
고철환, 「우리나라 갯벌의 규모와 간척」, 『한국의 갯벌-환경, 생물 그리고 인간』, 서울대출판부, 2001.
곽장근, 「새만금 속 한중문물교류」, 『한중관계연구』 2(1),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6.
김명진, 「고려시대 객관 안흥정 재검토」, 『영남학』 7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김상보 · 나영아, 「고대 한국의 도량형 고찰」,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4, 동아시아식생활학회, 1994.
김성규, 「'선화봉사고려사절단'의 군산정 입도와 동아시아 해역의 오룡묘 신앙」, 『중국사연구』 119, 중국사학회, 2019.
김성호, 『중국진출 백제인의 해상활동 천오백년』 2, 맑은소리, 1996.
김호동, 「고려시대 풍수지리설의 특성과 그 원인」, 『대구사학』 109, 대구사학회, 2012.
문경호, 「1123년 서긍의 고려항로와 경원정」, 『한국중세사연구』 28, 한국중세사학회, 2010.
_____, 「『고려도경』을 통해 본 군산도와 군산정」, 『지방사와 지방문화』 18(2), 역사문화학회, 2015.
_____, 「12세기 초의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神舟의 고려 항로」, 『한국중세사연구』 55, 한국중세사학회, 2018.
송미진 · 장성일 · 이경림, 「신안 흑산도 관사터 유적」, 『제11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기와학회, 2014.
윤용혁, 「고려시대 서해 연안해로의 객관과 안흥정」, 『역사와 경계』 74, 부산경남사학회, 2010.
이윤화, 「한국 서 · 남해안의 갯벌 지형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5.
이호경, 「태안 안흥정 학술조사 성과 보고」, 『제8회 태안역사문화학술발표회』, 태안문화원, 2015.
진호신, 「안흥량 일대 역사유적의 현황과 활용방안」, 『해양문화재』 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9.
진호신, 「『고려도경』을 통해 본 마도와 안흥정」,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허경진, 「고려시대 송나라 사행해로 누정의 변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12,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7.
Cheng, Z., Jalon-Rójas, I., Wang, X.H., Liu, Y., Impacts of land reclamation on sediment transport and sedimentary environment in a macro-tidal estuary, *Estuarine, Coast and Shelf Science*.242. Estuarine Coastal Sciences Association(ECSA), 2020.
van Maren, D.S., Oost, A., Wang, Z.B., Vos, P., The effect of land reclamations and sediment extraction on the suspended sediment concentration in the Ems Estuary. *Marine Geology*.376, Elsevier, 2016.

3. 기타
구글, 구글지도
국립해양조사원, 영종도 남단 일대 '고정밀수심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규장각,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안양시청, 홈페이지
인천일보사, 인천일보DB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A Study on the Location of Gyeongwonjeong Recorded in the *Goryeodogyeong*

Her, Woo-Bum*

Seo Geung, who visited Goryeo in 1123, compiled *Goryeodogyeong*. In this book, he left a detailed record of the route to Goryeo and the Jeonggwan(亭館) where he anchored. It provides valuable data for studying the sea routes between Goryeo and Song in the 12th century. Based on this, research on the location of Gunsanjeong, Anheungjeong, and Gyeongwonjeong was conducted as well as the sea route of Goryeo.

Gunsanjeong, Anheungjeong, and Heuksanjeong were reviewed together with Seogeung's records and archaeological excavation materials, and their positions were also identified in the academic world. However, there is still no consensus on the location of Gyeongwonjeong because archaeological excavation is difficult in Yeongjongdo, where Gyeongwonjeong is locat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a new airport and the development of a hinterland city.

Therefore, I tried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Gyeongwonjeong Pavilion through the method of graf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here Gunsanjeong, Anheungjeong, and Heuksanjeong were located to Yeongjongdo while reviewing the contents related to Gyeongwonjeong recorded by Geung Seo.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ed the location of Gyeongwonjeong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ree Jeonggwan from the same period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excavate ruins. It is thought that this study

* Visiting Professor at Inha University

will provide a new opportunity for research on the location of Gyeongwonjeong Pavilion, which has been at a standstill, and at the same time, will contribute to some extent to the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Jemulsa and Jemulpo.

Key Words : *Goryeodogyeong*(高麗圖經), Seaway to Goryeo(高麗航路), Gyeongwonjeong(慶源亭), Jemulsa(濟物寺), Jayeondo(紫燕島)

논문투고일 : 2022년 10월 31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12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12월 12일